

프랑스의 한국여성문학 수용 양상: 한국문학선집 수록 중·단편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남윤지(한국의외국어대학교)

1. 서론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과 국내 출판계에 ‘벼락같은 축복’으로 다가왔다. 수상자 선정 발표 직후에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라는 보도가 많았지만, 한발 물러나 한국문학 전반의 해외 수용 양상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노벨상 수상에 필요한 토양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은 『채식주의자』로 영국에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고,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에서 2023년 메디치상 외국문학 부문 상과 2024년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비슷한 시기와 그 전후로 이미 여러 한국문학 작품이 해외에서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작에 오르며 현지 평단과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형진(2023)은 이에 관해 영어권 현황을 소개하며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작가 대부분이 국내 문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작가군에 속한 여성”이며, “번역가도 대부분 여성”(p. 382)이란 점을 꼽았다. 물론 해외 문학상 수상이란 영예는 없어도 세계 독자의 관심을 끈 작품들도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상징하는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2275)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2016~2020년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2024년 이래 젊은 세대 여성작가들의 마음 치유 소설이 잇달아 해외에 번역 출간되며 화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흐름을 K-문학, K-페미니즘, K-힐링 등의 신조어로 응축해 표현하는 것을 국내 언론만이 아니라 외신 보도에서도 심심찮게 만난다.

한국 여성문학이 해외에서 약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과거에 한국문학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시기에 선구적으로 소개된 번역작품들이 잊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남성 중심 담론의 문학과 정전에서 탈피해 여성 글쓰기의 계보를 작성하여 한국문학을 재정전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 선집 발간 등의 결실을 맺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한국문학 번역사 기술을 통해서 여성작가의 계보를 수립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폰 플로토우(Von Flotow, 2017, pp. 31-32, 59-63)는 페미니즘 번역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며, “가부장제에서 ‘상실된’ 여성 작품들을 되찾기”해 번역본을 구축하고 계보를 만드는 일을 그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 여성문학이 어떻게 해외에 수용되었나 지형도를 그리는 시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가려진 여성문학 번역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며, 둘째, 당대에 번역 문학장에 입성하였으나 그사이 잊힌 작품들을 발굴하여 소생시키는 행위이며, 셋째, 세계문학에 합류할 잠재력을 가졌으나 번역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작품들의 목록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앞설 수 있다. 우선 ‘여성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연구 대상을 정의하는 문제이다. 백과사전적 정의와 개설만 보아도 “여성문학은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창작주체로서 쓴 여성작가문학뿐만 아니라, 여성해방문학, 여성에 관련된 문학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n.d.)는 점에서 그 개념과 함의가 문학사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문학’을 여성작가가 쓴 문학으로 간단히 정의하거나, 여성주의 시각(여성해방, 페미니즘)을 담은 문학으로 한정하거나, 창작 주체의 성별을 막론하고 여성에 관련된 문학 전체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계보를 이해하는 최초의 기준’이라는 기치 아래 최근 민음사에서 출간된 『한국 여성문학 선집』(여성문학사연구모임, 2024)의 전 7권에 공통으로 실린 「책머리에」나 권별 「시대

개관』에는 관련 문제의식이 압축적으로 잘 드러난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근현대문학장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에 제자리를 찾아주려는 시도로, “남성 중심 담론과 각축하는 독자적인 여성 주체”와 “미적 형식의 창조”를 수록 작품 선정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견과 논쟁이 있었다고 선집의 엮은이들은 밝힌다. 여성주의적 글쓰기라는 잣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여성성이 단일한 본질로 환원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는 여성작가들이 약자로서 생존하기 위해 가면 쓰기와 변장술로 체제 순응적인 글쓰기 전략을 취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부터는 여성작가들이 다양한 글쓰기 시도로 영토를 확장해왔는데, 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거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문학’을 ‘여성작가가 창작한 문학작품’으로 정의한다. 한국문학을 선집 형태로 소개할 때 실린 여성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하기에 여성주의 시각을 담은 작품으로 제한하지 않는 쪽을 택하였다¹⁾. 즉, 여성작가가 쓴 작품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포괄하고, 남성작가가 여성주의 시각에서 쓴 작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를 구분하는 시도가 합당한지, 혹자는 여전히 질문할지도 모른다. 남녀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 개념들이 부상하며 ‘성’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시대적 감수성이 바뀌는 마당에 ‘여성문학’과 ‘여성작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가부장제, 성차별, 페미니즘 등에 예민한 촉수를 드러내는 여성작가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틀에 갇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기에, 본 논문의 필자가 연구자로서 고민해 본 사항이기도 하다. 우선, 여성작

1) 본 논문의 분석 대상 번역본은 원작 발표 연도가 2010년대까지 분포하는데, 이를 『한국 여성문학 선집』(여성문학사연구모임, 2024)과 비교하기 위해 원작 발표 연도를 1990년대까지로 한정하여 작가 명단을 교차해보면,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선집에 2000년 이전 발표된 중·단편 소설 번역이 실린 여성작가 18명 중 14명은 『한국 여성문학 선집』에 (동일한 작품은 아니지만) 중·단편이나 장편 발췌 등이 실렸다. 나머지 4인의 경우에는 『한국여성문인사전』(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6)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인정받은 작가들이다.

가의 해외 수용 연구가 다른 젠더 담론을 도외시하거나 여성문학 계토화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여성문학의 가시성을 높이려는 시도일 뿐이며, 각각의 담론은 고유한 존재이유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작품 세계와 만나는 독자는 해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보다 시급한 문제는 세계문학공화국에서 여성작가가 축적한 상징자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명단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됨이 이러한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페미니즘의 산실이라 여겨지는 나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프랑스는 자국의 페미니즘 이론이 영미권에 수출되어 현지 화할 정도로 68혁명을 필두로 여성해방운동이 가장 진취적으로 이뤄진 곳이지만, 현지 문단의 남성 중심 구조는 아직 견고해 보인다.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수상자 명단에서 남성 작가의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문학상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남초현상이 두드러짐을 현지 언론에서 지적하곤 한다.

이러한 배경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980~2017년 출간된 한국문학선집에 수록된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문학이 프랑스 현지에서 수용²⁾되어 온 양상(여성작가 비율, 여성문학 수록작 경향, 현지 언론 보도, 독자 서평 등)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2.1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사

우선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사를 간략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한국학 확산에 앞장섰던 고(故) 이진명은 한국문학을 번역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가 1969년

2) 번역과 교류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용’은 원천 언어-문화에서 생산된 작품이 번역을 통해 목표 언어-문화에서 출간 유통되며 일어나는 모든 일(작가·작품 선정, 번역·출판 계약, 번역 전략 수립, 도서 형태 결정, 주변텍스트를 통한 작품 소개, 현지 언론 보도, 번역서 독자 반응 등)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어 정기간행물 『Revue de Corée』(르뷔 드 코레)를 창간한 것을 그 시발점으로 보았다(Li, 1995, pp. 118-119). 해당 잡지는 1997년 폐간되기 전까지 한국문학 작품 번역을 꾸준히 게재하였다. 한국소설을 다수 번역한 바틸리오(Batilliot)는 1970~1990년을 ‘선구적’ 시기라고 보았는데, 몇몇 번역자가 주도적으로 현지 출판사에 작품 번역을 제안하여 선집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소설집, 민담집, 시선집)을 ‘산발적’으로 출간한 게 이 시기 특징이다(2016, pp. 4-5).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문학예술진흥원이 주요 지원 기관이었다.

1990년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한다. 특히 몇몇 출판사가 ‘한국문학 출간 정책’을 표방하며 적극 활동에 나선 덕분이다. 이때부터 작품선집, 장편소설 등 단행본 형태의 번역 출판물이 늘어났다(Li, 1995, pp. 121-122). 악트쉬드(Actes Sud)와 필립 피키에(Philippe Picquier) 출판사가 그 선봉에 섰다. 또한,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학번역금고가 각각 1992년, 1996년 설립되어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프랑스 내 한국문학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교류 사례를 꼽자면, ‘벨제트랑제르’(Belles Étrangères)가 있다. 벨제트랑제르는 프랑스 정부가 문화부 주관하에 1987~2010년 매해 11월에 개최한 외국문학 포럼으로, 특정 국가나 한 언어권의 작가들을 초청하던 행사이며, 1995년에는 한국이 선정되어 한국작가가 13명이나 현지를 방문하였다. 주불 한국문화원 발간 잡지를 보면 당시 파리와 지방 도시에서 풍성하게 열린 행사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았는데, 해당 기사(De Saint Cheron, 1996, pp. 2-8)는 박완서 작가를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중심인물 중 한 명으로 꼽았고, ‘한국문학 속 여성의 자리’란 주제로 박완서, 오정희, 한말숙이 프랑스 여성작가 세 명(미래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에르노(Ernaux) 포함)과 함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한국 여성문학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한국문학번역금고를 확대·개편해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면서 2000년대부터 가시적인 성과들이 늘어났다. 2010년대 한국문학의 번역·출간에 촉진제 역할을 한 교류 사례 중 하나는 파리도서전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한 2015~2016년 ‘한불 상호 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7~20일 열린 파리도서전에 한국

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한국작가 30명이 참가한 행사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출판 장르와 세대의 작가들이 현지 독자와 만날 수 있었다. 이후 K-팝, K-드라마, K-무비로 대표되는 한류가 프랑스에까지 밀려들며 한국문학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다.

한국문학의 활성화는 프랑스에서 문학상 수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신경숙의 『외딴 방』과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가 각각 2009년과 2014년 ‘주목 받지 못한 작품’상,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2018년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김탁환의 『방각본 살인사건』이 2018년 카멜레온 문학상,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2023년 메디치상 외국문학 부문 상과 2024년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이 세계문학 중심부를 향해 나아가며 이룬 성과를 잘 대변한다.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들이 “해외 언론보도의 증가와 주요 국제문학상 수상은 해외 출판계와 문학시장의 관심을 제고하면서, 현지 시장(독자) 수요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이어지고”(박소연, 2021, p. 9, 곽효환, 2022, p. 11에서 인용됨), 이는 “실제 한국문학의 세계출판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확인할 수 있다.”(곽효환, 2022, p. 18)라고 평가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상기에 언급된 요인들은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한국문학선집의 프랑스어 번역서 수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 맥락을 구성한다.

2.2 선행연구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접점을 갖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우선,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출판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 두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오정숙(2004a, 2004b)은 프랑스에 체류하며 2002년 12월까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뒤이어 김정연(2015)은 2000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의 서지 자료를 바탕으로 방대한 번역서 현황을 잘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단행본 위주로 정리가 되어 문학선집에 수록된 중·단편소설 번역의 양상은 알 수 없다.

오정숙(2004a)은 한국문학 번역의 단행본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번역 사업이 이뤄졌고, “초기에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단편소설집에서, 중기에

는 단일 작가의 단편이나 중편이 소개되고, 후기로 이행하면서 장편소설들이 집중적으로 번역³⁾되었는데, 이는 “특히 장편소설을 선호하는 프랑스 문단의 기호를 최근 몇 년 사이에 번역 지원 대상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평했다(pp. 50-51). 선집의 출간은 한국문학의 현지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리스테루치-루드니키(Risterucci-Roudnicky, 2008)는 “소위 ‘소수 문학’³⁾의 외국작가들이나 ‘소수’ 외국작가들은 선집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앤솔로지가 그 형태로나(좁은 공간에 많은 작품), 가능성으로나(다양한 명성의 작가들), 비용 절감으로나(단편 저작권은 저렴한 편) 출판사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덜한 배포 방식”이기 때문이며, 그간 전혀 또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언어-문화권이나 집단의 문학을 ‘최초로’ 출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pp. 38-39).

한국 여성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에 관한 연구로는 신경숙, 김애란, 한강 등 주요 작가의 소설 번역본을 분석한 국내 논문을 몇몇 찾아볼 수 있다⁴⁾. 개별 작가를 넘어서서 조금 더 넓게 번역 양상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남윤지(2024)가 『르뤼 드 코레』에 번역 수록된 근현대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 작품이 프랑스에 어떻게 소개되었나를 분석하였다. 한국문학 번역사의 한 자락이 잊히지 않도록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르뤼 드 코레』의 주요 독자가 한국학에 관심 있는 소수 전문가였기에 수록 작품에 대한 언론보도, 일반독자 반응은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유건수 등(2023)은 그간 한국문학 번역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에서 “번역된 저자 성별 통계를 내거나 번역 추이를 저자 성별이나 젠더와 관련해 의미화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기존 언론 보도에서 여성작가 작품들의 높은 해외 판매고를 근거로 “여성 저자 번역 우세 경향을 짚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적 판단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pp. 29-30), 한국 현대문학의 영어 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 과

3) 여기서 ‘소수’는 ‘주류’, ‘중심부’와 각각 대비되는 ‘비주류’, ‘주변부’의 의미이다. 리스테루치-루드니키는 카자노바(Casanova, 1999/2008)가 저서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세계문학공화국)에서 문학텍스트의 국제적 교류가 강력히 위계화된 세계에서 이뤄지는 불평등한 교환이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한다.

4) 대표적으로 다음 세 논문을 들 수 있다. 김경희(2015), 이현희(2018), 이영훈(2022).

정에서 저자 성별 추이와 그 의미를 도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문학선집의 프랑스어 번역을 대상으로 여성작가의 현지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2.3 연구 방법

프랑스에서 번역·출간된 한국문학선집의 목록은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문학번역원 온라인 DB와 연구자 본인의 개인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해 보완하였다. 2025년 7월 최종 확인 결과, 번역서 총 20종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집계되었다. 연구 기획 단계에서는 픽션으로 장르를 한정하고 ‘한국문학선집’이란 기준은 ‘여러 한국작가의 작품을 한데 묶은 앤솔로지’로 어렵지 않게 설정하였으나, 막상 실제 도서를 입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번역서 간에 이질성이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1995년 출간된 『Les Belles étrangères: 13 écrivains coréens』(벨제트랑제르 — 13인의 한국작가들)은 한국 시인과 소설가 13인의 작품이 번역 수록된 선집으로 기존 자료들⁵⁾에 소개되었으나, 실제 도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학 관련 프랑스 현지 행사 ‘벨제트랑제르’를 위해 발간한 브로슈어 성격의 책자로, 작가 13명을 각각 2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대표작을 두서너 페이지씩 번역한 내용이 불과 90페이지에 불과하게 들어 있다. 이러한 발췌 번역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NRF(La Nouvelle Revue Française)』와 같은 프랑스 정통 문예지에 작품이 발췌 소개된 경우도 제외함을 밝혀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기간행물이기는 하지만 단행본과 같이 유통되며 원작 전체를 번역한 선집은 포함하였다.

고민이 된 책 중 하나는 한국 작가와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같이 실은 경우이다. 본래적 의미의 한국문학선집은 아니지만 한국문학에서 선별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한국여성문학의 계보를 그리기 위해 여성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하는 데 있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수록작 목록에서 프랑스 작가의 작품은 제외했다. 또 하나는 국내 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인쇄 출간 배포된 경우이다. 비록 일반 독자와

5) 오정숙(2004b)의 한국문학 번역 출판 목록(프랑스어), 한국문학번역원 DB 등.

는 만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프랑스 현지 공공도서관에 소장이 확인되었기에 대상에 포함하였다. 끝으로 중단편소설들은 완역본이 실렸으나 장편소설 발췌본, 시, 평론 등이 함께 실린 선집이 있다. 해당 도서는 포함하고, 다른 장르의 글들은 수록작 목록에서 제외했다.

본 논문은 기초 연구적 성격도 있기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문학선집 20종을 대상으로 수록 작품과 작가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서지학적 정보 및 주변텍스트 주요 요소를 분석한 후, 언론 기사 및 독자 서평을 통해 현지 반응을 분석하고 내용을 종합한다.

3. 서지학적 정보 및 주변텍스트 주요 요소 분석

3.1 서지학적 비교 분석

프랑스에서 번역·출간된 한국문학선집은 총 20종으로 그 목록은 <표 1>과 같다. 논의의 편의상 출판연도순으로 선집마다 번호를 매겼고, 여성문학선집은 번호 다음에 (F)라 표시하였다. 2종이 이에 해당한다.

표 1

프랑스어 번역·출간 한국문학선집 목록

선집번호	출판연도	프랑스어 번역서 제목	출판사	비고
		표제작 원제 [작가명] 또는 역서 제목 직역	(책임) 번역자 또는 편집자	기관 지원 여부
1	1980	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 : et cinq autres nouvelles	Fanlac	스위스 출판사 Eibel 공동 출간
		환영을 찾는 여인 [이정호] 외 단편소설 5편	Marc Orange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선 집 번 호	출 판 연 도	프랑스어 번역서 제목	출판사	비고
		표제작 원제 [작가명] 또는 역서 제목 직역	(책임) 번역자 또는 편집자	기관 지원 여부
2	1981	Liberté sous clef	Éditions le Léopard d'Or	15편 중 10편은 『Revu de Corée』 개제작 재수록 / ‘한국문학’ 총서
		간힌 자유 [정연희]	Roger Leverrier	한국문학진흥재단
3	1988	L'Oiseau de Molgyewol : anthologie de nouvelles de la Corée du Sud	Le Méridien	‘세계선집’ 총서
		물개월의 새 [황석영]: 한국단편소설선집	Kim Wha-young, P. Maurus	책에 사사표기 없음
4 (F)	1989	Une Fille nommée Deuxième garçon : anthologie de nouvelles de Corée du Sud	Le Méridien	한국여성문학선집 / ‘세계선집’ 총서
		돌남이 [이경자]: 한국단편소설선집	Ch'oe Yun, P. Maurus	책에 사사표기 없음
5	1989	Les Grues : Anthologie de nouvelles coréennes	La Fondation coréenne de la culture et des arts	국내 인쇄·출간 / 비상업용 / 프랑스 공공도서관 소장
		학(鶴) [황순원]: 한국단편소설선집	Jo Nam-hyön, Kwak Kwang-soo (di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6	1995	Anthologie de nouvelles coréennes contemporaines, Tome 1	Éditions Philippe Picquier	한국문학번역원 DB 원제 표기: 한국젊은작가소설선
		한국현대단편소설선집 1	G. B. Berthier (di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7	1995	Anthologie de nouvelles coréennes contemporaines, Tome 2	Éditions Philippe Picquier	한국문학번역원 DB 원제 표기: 한국젊은작가소설선
		한국현대단편소설선집 2	G. B. Berthier (di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8	1997	La Chanteuse de P'ansori : prose coréenne contemporaine	Actes Sud ; Éd. UNESCO	악트 쉬드 ‘한국문학’ 총서 /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
		서편제(西便制) [이청준]: 한국현대산문	Patrick Maurus (dir.)	유네스코

선집번호	출판연도	프랑스어 번역서 제목	출판사	비고
		표제작 원제 [작가명] 또는 역서 제목 직역	(책임) 번역자 또는 편집자	기관 지원 여부
9	2002	Passport pour Séoul : visite et aperçu littéraire	Actes Sud	2002년 한일 월드컵 / 서울 소개 글
		서울행 여권: 방문하기와 문학 엿보기	P. Maurus (dir.)	책에 사사표기 없음
10	2010	Impressions papier <i>hanji</i> : dix nouvelles franco-coréennes	Atelier des Cahiers	프랑스 남성작가 6명, 한국 여성작가 4명 작품 수록 / '문학' 총서
		인상 '한지': 프랑스 한국 단편소설 10편	F. Laut (dir.)	한국문학번역원, 프랑스대사관·문화원
11	2011	J'étais un maquereau : nouvelles coréennes	Cartouche	남성작가 작품만 3편 수록 / '현대작가'총서
		포주 이야기 [김태용]: 한국단편소설	Choi Mikyung, J.-N. Juttet (dir.)	한국문학번역원
12 (F)	2011	Cocktail sugar et autres nouvelles de Corée	Zulma	한국여성문학선집
		카테일 슈가 [고은주] 외 한국단편소설	Choi Mi Kyung, J.-N. Juttet (dir.)	한국문학번역원
13	2012	Séoul, vite, vite ! : anthologie de nouvelles coréennes contemporaines	Éditions Philippe Picquier	—
		서울, 빨리, 빨리!: 한국단편소설선집	Kim Jeong-yeon, S. Salinas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
14	2014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 nouvelles coréennes	Philippe Rey	—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김애란]: 한국단편소설	Choi Mikyung, J.-N. Juttet (dir.)	한국문학번역원
15	2014	Brèves, N° 105 : Corée du Sud	BRÈVES	단편문학 전문잡지 / 한국 소개 사진
		브레브, 105호: 한국	Choi Mikyung, J.-N. Juttet (dir.)	한국문학번역원
16	2015	Corée des villes, Corée des champs	Decrescenzo Éditeurs	단편소설 'Microfictions' 총서
		도시 한국, 시골 한국	Kim Jeong-yeon, S. Salinas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선집번호	출판연도	프랑스어 번역서 제목	출판사	비고
		표제작 원제 [작가명] 또는 역서 제목 직역	(책임) 번역자 또는 편집자	기관 지원 여부
17	2016	Nouvelles de Corée	MAGELLAN & CIE	국가별 대표 단편집 'Miniatures' 총서
		한국 단편소설	Choi Mikyung, J.-N. Juttet (dir.)	한국문학번역원
18	2016	Fictions coréennes	Decrescenzo Éditeurs	한국 프랑스 수교 130주년 / 단편소설, 중편소설(발췌), 시, 평론 수록
		한국픽션	J.-Cl. De Crescenzo (dir.)	책에 사사표기 없음
19	2016	Histoires insolites de Corée	Decrescenzo Éditeurs	단편소설 'Microfictions' 총서
		한국의 기이한 이야기들	Kim Jeong-yeon, S. Salinas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
20	2017	Amours fantômes	Decrescenzo Éditeurs	단편소설 'Microfictions' 총서
		헛된 사랑	Kim Jeong-yeon, S. Salinas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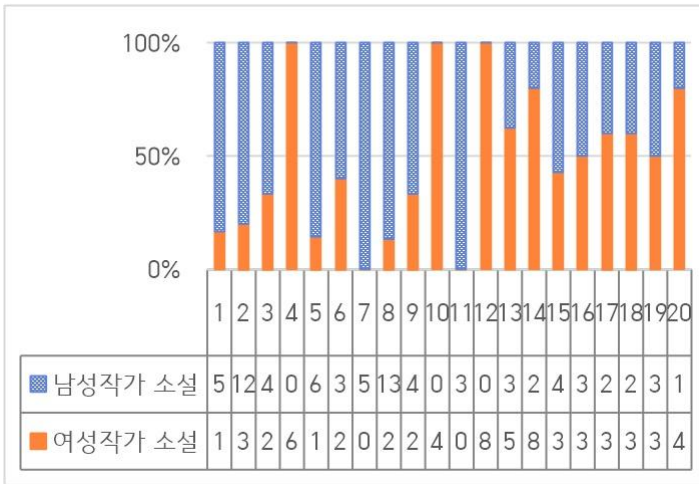
<표 1>의 선집 20종에 수록된 중·단편소설 목록을 연대기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여성문학의 번역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작가의 남녀 성별을 함께 표시하였다. 수록 작품별 번역자의 이름은 지면의 제약상 생략했다⁶⁾.

6) 선집 수록 작품별로 번역자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작품 1편 번역에 참가자가 10명에 달하는 경우(한국문학번역원 아카데미 교수자와 수강생들이 협업한 번역 사례)도 있기에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다. 사실, 여성문학 번역의 핵심 매개자 역할을 하는 번역자들에 대한 정보, 특히 성별은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 다수가 여성인지, 그 사실이 여성문학 작품 선정과 번역 전략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등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제약상 본 논문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하고 간략히 살펴본다. 대부분의 선집 번역은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이뤄졌다(예외적으로, 선집 1번과 2번은 프랑스 남성 한국학자가 각기 단독 번역한 사례이다). 여성문학선집에 한정해서 보자면, 2종 모두 한국 여성과 프랑스 남성이 공동 번역했다. 그중 여성만 보자면, 4번 선집은 한국 여성문학에

3.1.1 선집 수록 작가의 성별 비중 변화

한국소설선집에 작품이 실린 작가의 성별 비중을 번역서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작가가 남녀 중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선집은 4종이다. 4번, 12번은 여성문학선집으로 기획되었고, 10번은 프랑스 남성작가 6명과 한국 여성작가 4명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는데 프랑스 소설은 수록작 목록에서 제외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이며, 11번은 남성문학선집이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작가의 작품 3편만 수록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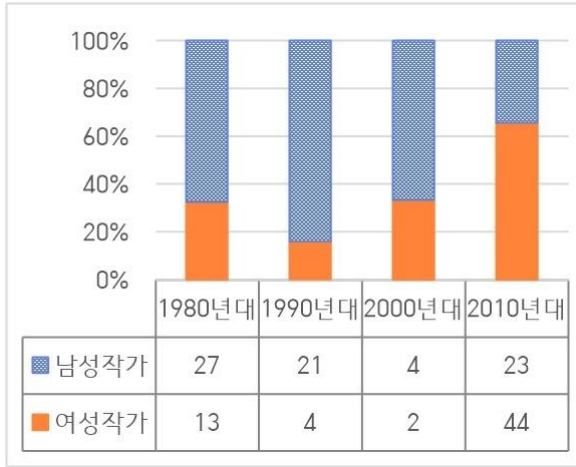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어 번역 한국문학선집 수록 소설 작가 성별 구성



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인 최윤이 번역했고, 12번 선집은 프랑스 여성문학의 거장 콜레트(Colette)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미경이 번역했다. 최미경은 이외 4종(11, 14, 15, 17번 선집) 출간에 책임 번역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2인 공동 번역자가 모두 여성이고 선집 수록작 전체를 다 번역한 경우는 김정연과 살리나스(Salinas) 팀이 유일하다(13, 16, 19, 20번 선집 번역).

그림 2

프랑스어 번역 한국문학선집 수록 소설 작가 성별 비중 변화



본 연구 차원에서 2025년 7월 현재 최종 집계한 한국문학선집 20종에 수록된 중·단편소설은 한국작가 총 93명의 작품 번역이 138편 실렸다. 성별로 구분해 비교하자면, 여성작가 41명의 작품 번역본 63편, 남성작가 52명의 작품 번역이 75편 실렸다. 이는 번역본 개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후술하겠지만 동일 원작 한 편이 거듭 수록된 경우도 있다. 전체 작가 중 여성작가는 44퍼센트, 남성작가는 56퍼센트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번역본 중 여성작가의 작품은 약 46퍼센트, 남성작가의 작품은 약 54퍼센트로 거의 동수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시대별로는 비중에 차이가 난다. 이는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연대별로 출간된 도서 및 수록작의 수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문학선집 수록작 중 여성작가의 중·단편소설 비율이 30퍼센트대를 넘지 못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서 그 비중이 65퍼센트(67편 중 44편)에 달하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진입하는 시기에 프랑스어 번역에서 여성작가의 약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3.1.2 선집 수록 여성작가의 현황

한국문학선집에 중·단편소설이 실린 작가를 본 논문의 주제에 맞게 여성에 한정해 작품이 가장 많이 실린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문학선집 수록 중·단편소설 여성작가 현황

번역 순위	인원	번역 개수	원작 개수	여성작가
1	1	7	5	김애란
2	1	5	5	박완서
3	1	4	4	오정희
4	2	3	3	김미월, 은희경
5	5	2	2	박찬순, 전경린, 조경란, 편혜영, 한강
6	31	1	1	강석경, 고은주, 공지영, 권여선, 권지예, 김다운, 김인숙, 김진옥, 김향숙, 박경리, 손소희, 신경숙, 안영실, 양귀자, 윤고은, 윤성희, 윤정모, 이경자, 이규희, 이정호, 이청해, 정연희, 정이현, 정지아, 조해진, 천운영, 최면정, 최은미, 최진영, 하성란, 한무숙
총수	41	63	61	

번역본을 기준으로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1위 김애란, 2위 박완서, 3위 오정희, 공동 4위 김미월, 은희경 순으로 이어진다. 김애란의 경우 두 작품이 중복 수록되어 번역본과 원작의 개수에 차이가 난다. 「칼자국」이 한 차례 재수록되었고(선집 10, 12번), 「달려라, 아비」가 한 차례 재번역되었다(선집 13, 18번)⁷⁾. 동일 작품이 거듭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겠지만,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을 선별하는 선집 기획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시대를 표상하는 소설 중 프랑스어권 수용이 유력한 작품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학선집 번역 출간의 주요 목적은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지평을 만드는 데 일조

7) 선집 18번 수록작의 경우, 작가 선집에 한 차례 실렸다 재수록된 사례이다.

한다. 작가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문학선집 수록이 개인 단행본 번역 출간의 보증수표도 아니며 꼭 거쳐야 하는 관문도 아니다. 프랑스로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선집 20종에 중·단편소설이 실린 여성작가 총 41명 중 25명은 한국문학선집 외에 프랑스로 단독 작품집이나 소설책이 번역 출간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⁸⁾. 한국문학선집에 작품이 한 번도 수록된 적 없이 단독 소설집이나 소설책을 펴내는 작가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⁹⁾, 이러한 방식이 프랑스어 번역 출판의 정석이 되었다.

3.1.3 여성문학 수록작의 변화 양상

지면의 제약상 여성문학선집에 한정하여, 부득이 조금 거칠게 요약해, 선집 간 수록작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선집 4번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여성의 삶을 여성의 시각에서 다룬 작품들이다. 전쟁통에 어긋났다 재회한 남성과 결혼제도 밖의 사랑을 감내한 여자(「그늘」), 한국전쟁 속 여성성 문제에 직면한 노파(「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가정 폭력 피해자인 여성 어민(「둘남이」), 미군 상대 매춘 여성(「낮과 꿈」), 젊은 여성 영세 농민(「배추 농사」), 베트남전쟁 미망인으로 홀로 키운 대학생 아들을 감옥에 보낸 촌부(「어머니」) 등 소외층 또는 하층민 여성이 소설의 중심에 있다. 선집 12번은 여성 화자·인물이 대부분 작품의 중심을 이루지만 선집 4번과는 주제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딸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성과 죽음(「칼자국」), 남녀 간의 불륜과 기만적 결혼생활(「칵테일 슈가」, 「부인내실의 철학」), 독신 여성의 외로움(「첫눈 오던 날」), 가출한 엄마와 절망한 아빠 사이에 방임된 여자아이(「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남편 병간호와 위태로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립싱크」), 강간의 고통에 내태 시술로 맞서는 여

8) 한국문학선집에 2편 이상이 실렸던 여성작가라면 한정해서 보자면 김미월, 박찬순이 단행본 번역 발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9) 한국문학 번역가 겸 한국학 연구자인 정은진(2020, pp. 339-371, 346-347)은 한국문학이 프랑스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화적 경제적 장애물 중에서 장·중·단편소설 카테고리의 차이가 출판물을 통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고찰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로 작품을 한 편이라도 번역 출간한 20세기 한국 소설가 중 40%가 장편소설 단행본으로 프랑스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단편으로 등단한 후 장편에 도전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비되었다.

의사(「그 가을의 사흘 동안」) 이야기가 다뤄진다. 선집 12번이 선집 4번과 크게 대비되는 점은 혼외자 아들의 결핍과 고독에 관한 이야기(「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로 여성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지 않은 작품도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동일한 작가의 수록 소설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작품 번역본이 최다 수록된 김애란의 경우만 살펴보자. 소설 총 5편 중, 각기 다른 선집에 처음 번역 소개되었다가 추후 다른 선집에 다시 실린 두 작품 「칼자국」과 「달려라, 아비」에서 작가는 딸이 (유년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기억 속의) 강인한 어머니와 유약한·부재하는 아버지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고유한 감성과 필치로 그려냈다. 나머지 3편에는 악화일로에 있는 듯한 위태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너의 여름은 어머니」에서는 젊은 여성이 대학 시절 남자 선배로 인해 겪는 좌절과 고립감이 어릴 적 트라우마와 겹쳐 그려진다. 나머지 두 작품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이 서사의 중심에 선다.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에서는 어릴 적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던 남자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가족과도 등지고 상경해 택시기사로 고단한 삶을 살다 뜻밖의 행운처럼 불법체류자인 조선족 여인을 만나 결혼해 기회의 땅 중국으로 가는 꿈을 키워가지만 아내를 병으로 잃고 홀로 남는 이야기가 축을 이루며, 「물속 골리앗」은 재건축 예정 철거촌에 살다 집을 잃게 된 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잃은 가운데 폭우와 홍수 속에 홀로 살아남게 되는 삼중 재해의 이야기다. 이러한 작품의 변화는, 물론 작가 세계의 확장이라는 이유가 크겠지만, 여성작가 글쓰기의 변모와 여성문학 번역·출간 작품 선정 양상의 변화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문학선집 20종에 수록된 여성작가의 중·단편 소설들은 2000년대까지는 여성이 중심인물이거나 1인칭 여성 화자의 서술(10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2010년대부터는 남성이 중심인물이거나

- 10) 물론, 여성작가가 쓴 1인칭 여성 화자의 소설이라고 해서 꼭 여성주의 소설은 아니다. 선집 13번의 「그는 언제 오는가」는 여동생 죽음의 진실을 둘러싼 나와 제부의 상실과 애도를 이야기하며, 선집 15번 「맨발로 글목을 돌다」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작가 공지영의 경험적 자아 ‘나’와 타인들(자신의 소설을 번역한 납북 피해자 일본인 남성 번역가 ‘H’, 위안부 할머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납치 한국인 인질, 아우슈비츠 수용자)처럼 모든 인간은 서로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1인칭 남성 화자가 서술하는 작품¹¹⁾도 등장한다.

3.2 주변텍스트 주요 요소 분석

소설 작품 속 서사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턱(들)’(scuils)이 있다. 바로 곁텍스트(paratexte)이다. 주네트(Genette, 2002, pp. 7, 10-11, 남윤지, 2015, pp. 115-116에서 인용됨)가 정의한 개념에 따르면, 텍스트를 에워싸고 연장하며 소개하는 요소들, 다시 말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도록 텍스트의 ‘세계 속 존재’를 책임지는 생산물들의 총합이 곁텍스트에 해당하며, 이는 텍스트와의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곁텍스트 중에서 책 안에 들어간 요소는 주변텍스트(péritexte, 표지, 제목, 작가명, 서문, 후기 등)라 하고, 책 밖에 떨어져 나온 요소는 바깥텍스트(épitexte, 언론 인터뷰, 작가 일기, 편지, 비평 등)라 한다. 이 장에서는 곁텍스트 중 책에 포함된 주변텍스트의 주요 요소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바깥텍스트에 해당하는 언론 기사와 독자 서평은 책과는 분리되어 있고 그 목적과 기능 면에서 이질성이 크기에 다음 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룬다.

3.2.1 선집 제목 및 장르 명칭

프랑스어로 선집(選集)은 ‘anthologie’나 ‘recueil’에 대응된다. 전자는 영어의 앤솔러지와 같은 의미로 특정 국가, 언어권, 시대, 주제, 장르 등에 따라 대표적인 작가 여럿의 작품을 모아 엮은 것이고, 후자는 한 작가의 단독 작품집일 수도 있고 여러 작가의 공동 작품집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함께 수록된 작품들 간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¹²⁾.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한국문학선집의 프랑스어 제목이나 부제목에는 앤솔러지 형식을 지칭해 ‘anthologie’라는 단어만 사용되었다. 장르의 경우, 제목 또는 부제목

11) 수록작 중 여성작가가 1인칭 남성 화자로 서술한 작품은 드문데 해당 소설은 다 음과 같다. 선집 12번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선집 17번 「프라자 호텔」, 선집 20번 「빛의 호위」, 선집 20번 「창 너머 겨울」이다.

12) 학계나 출판계의 관행과는 달리 일상어에서는 ‘anthologie’와 ‘recueil’의 구분이 그리 엄밀하지 않다. 현지 독자 서평을 읽다 보면 앤솔러지를 ‘recueil de nouvelles’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에는 중·단편소설에 해당하는 ‘nouvelles’이 주로 사용되었고, 예외적으로 산문을 뜻하는 ‘prose’가 선택되었다.

한국문학선집은 한국에서 출간된 선집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펴내는 게 아니라 현지 출판사 쪽에서 번역자나 편집자의 주도로 수록작을 구성하기에 도서의 제목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새로 짓는다고 보는 쪽이 맞겠다. 남(Nam, 2012, p. 440)에 따르면 문학선집의 제목 작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두 가지를 혼용할 수도 있다. 첫째로, 국가, 시대, 장르, 형식 등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수록작 하나를 표제작으로 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반적인 제목을 새로 하나 짓는 방법이다. 수록된 작품들을 아우르는 테마가 있다면 제목 선정에 결정적일 수 있다¹³⁾. 그리고 두 가지 제목 작법을 사용한 경우는 선집 20종 중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문학선집의 제목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모두 표제작 소설 제목, 국가, 장르를 표시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선집 4번 『Une Fille nommée Deuxième garçon : anthologie de nouvelles de Corée du Sud』(「둘남이」: 한국단편소설선집)¹⁴⁾과 선집 12번 『Cocktail sugar et autres nouvelles de Corée』(「각테일 슈가」 외 한국단편소설)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두 선집은 ‘여성문학선집’임을 제목부터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변텍스트 요소를 통해 이를 밝힌다. 4번 선집은 책의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뒤표지에 넣어서, 책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둘남이’, ‘끝자’와 같은 이름이나 만아들 이름으로 불리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수록작 모두가 ‘여성들이 쓴, 여성들에

13) 『Corée des villes, Corée des champs』(도시 한국, 시골 한국)은 독자의 기대지평을 만들어준다. 정보적 기능의 어휘만이 아니라 평가어가 사용될 수 있다. 『Histoires insolites de Corée』(한국의 기이한 이야기들)에서 ‘insolite’는 ‘기이한’, ‘기발한’, ‘엉뚱한’을 뜻하는, 수록 소설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어휘이다. 독자들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 독재 정권 탄압, 민중 투쟁 등의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재기발랄한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

14) 표제작 「둘남이」의 프랑스어 제목은 직역하자면 ‘둘째 남자아이’라 불리는 여자아이’ 혹은 ‘둘째 아들’이라 불리는 딸’이다. 한국에서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시절 딸은 그만 낳고 다음에는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작명하던 방식이 프랑스 독자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다. 제목만 보고 궁금증이 생긴 독자는 해당 소설의 본문과 선집의 주변텍스트를 읽으며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Nam, 2012, pp. 440-443).

관한' 글임을 명시한다. 12번 선집의 경우, 초판본은 책 책날개에서 그리고 포켓판은 뒤표지에서, 수록 소설 모두 현대 여성작가의 작품임을 밝힌다.

3.2.2 소개 글 분석

문학선집에 곁들여진 주변텍스트 요소는 번역서마다 그 구성에 차이가 난다. 다양한 형식의 소개 글은 번역의 기대지평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논문 지면의 제약상 각 요소별 유무와 분포 양상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하고¹⁵⁾ 유의미한 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주변텍스트에 담긴 소개 글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우선, 앤솔로지라는 선집의 기능이 충실히 드러나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한국이란 나라, 한국인의 삶, 한국문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독서의 효용성을 내세운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도를 보자면, 여성문학선집은 당연히 ‘여성’에 방점을 둔다. 선집 4번 서문에서 번역자 최윤과 모뤼스(Maurus)는 “여성에게 관해 여성이 집필한 텍스트”임을 강조하며, “여성작가들은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묘사”하며 “와해하는 유교주의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논거를 갖고 설득력 있게 증언”한다고 밝힌다. 또한, “남성의 부재” 속에 여성은 “여전히 대상화된 존재로서 생산력을 착취당하면서 가정의 수호자이자 가계의 살림살이를 맡은 전통적인 기능, 그리고 남성의 결핍을 채울 수밖에 없는 현대적인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유교사회의 붕괴와 야만적인 자본주의”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회 구성원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을 대신 짊어져 줄 누군가가 언제나 어딘가에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문학은 한국문학의 ‘부속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그 문제의식을 높이 산다. 선집 12번 초판본은 책날개에서 “독자는 익숙한 동시에 낯선 세계 속으로 갑자기 내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서 “문단에서 인정받은 여덟 명의 여성 소설가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강렬하고 생생하게 증언하여, 독자들은 이들의 글에 여지없이 매료되고 만다”고 강조한다.

15) 선집 총 20종 중에서 번역자, 총서책임자, 책임편집자, 국문학자 등 전문가의 소개 글(감사의 말과 용어 해설은 제외)이 서문이나 후기의 형태로 실린 경우는 13종(2~10, 13, 15, 17, 18번 선집)이며, 나머지 7종은 뒤표지, 책날개 등에 짧은 소개 글이 실렸다.

여성문학선집 외에 주목할 만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8번 선집의 경우, 책임편집자인 모뤼스는 후기에서 (수록작 외에도) 한국소설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을 언급한다. 한국소설을 읽어 본 이들이라면 작품 속에 그려진 인물들의 모습에 놀라게 될 텐데, “머저리, 정신병자, 난쟁이, 꼽추, 병어리의 인간 군상”은 “한국이 겪는 온갖 고통의 화신(化身), 즉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탈구된 신체와 정신을 ‘일그러진 영웅’으로 그려”낸 것이며, 복잡다단한 민중의 모습에 어떤 결함이나 장애를 부여하던 간에 작가들은 모종의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작품에 묘사한 인물이 언제나 “바로 나와 같다”는 작가의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으며, 마찬가지로 “오정희나 한무숙의 소설처럼 결혼이나 강간으로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여성이든, 황석영이나 강석경 소설처럼 매춘으로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여성이든, 이름조차 ‘둘남이’로 불리거나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호명될 수밖에 없는 여성이든, 이 모든 여성은 ‘바로 나’라는 고백”이라고 평한다. 해당 글은 저자 모뤼스가 1995년 ‘벨제트랑제르’ 행사 개막식 때 발표한 내용을 다소 수정해 선집(1997년 출간)에 후기로 실은 것이라 명시하였는데, 후술하겠지만 1992년 현지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서도 같은 요지로 말한 바 있다. 모뤼스가 한국학 연구자, 한국문학 번역가, 편집자로서 한국의 ‘여성문학’을 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음이 드러난다.

끝으로, 소설 장르에 관한 내용이다. 주변테스트의 다양한 요소에 한국문학 단편소설이 갖는 고유한 특성, 문학적 위상, 막강해진 배경 등을 간략히 언급한 경우도 있고(선집 1번 뒤표지, 6번 서문, 12번 초판 책날개, 14번 뒤표지, 17번 서문, 18번 서문),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선집 3번, 15번은 번역자 서문) 프랑스식 ‘문화 병합’ 행위를 비판한 사례(선집 8번 후기)도 있다.

4. 언론 기사 및 독자 서평 분석

현지 반응 연구를 위해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서 자료 조사를 수행하

였으나, 번역·출간된 한국문학선집에 관한 프랑스 문단의 반응(본격 문예 비평)은 찾지 어려웠다. 최윤은 프랑스의 한국문학 전문지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간을 주도한 여성문학선집(<표 1> 선집 4번)이 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당시 한국문학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 진단했다(Ch'oe, 2023, pp. 11-20)¹⁶). 이후로도 한국문학선집에 대한 문예 비평을 찾기 어려운 것은, 프랑스에서는 장편소설과 달리 문학선집의 경우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두 가지 성격의 자료(언론기사와 독자 서평) 분석을 통해 한국문학선집 수록 여성작가 소설에 대한 현지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검색 결과, 언론 기사는 2014년까지 출간된 선집에 집중되었고, 독자 서평은 1990년대부터 출간된 선집에 관해서만 확인됐다. 두 가지 자료를 통해 한쪽에 공백이 있어도 이를 메워가며 전체적인 현지 반응 파악이 가능하다.

4.1 언론 기사 분석

한국문학선집을 통해 한국여성문학이 프랑스 언론에 어떻게 비쳤나를 살펴보기 위해, 2025년 2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서 자료 조사를 수행하였고, 2026년 2월 14일 최종 업데이트하였다. 분석 대상은 주요 두 데이터베이스(DB) 검색결과로 한정한다. 그중 유로프레스(Europresse)는 프랑스어(권)의 다양한 신문 잡지 기사 검색과 본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DB는 정기간행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1990년대 중후반 발행 호부터 검색이 가능하다. 더 오래된 자료의 경우, 갈리카 앵트라무로스(Gallica Intramuros)를 통해 보완하였다.

16) 이는 미국에서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최윤 작가가 언급한 도서와 같은 해(1989년)에 한국 여성작가 3인의 소설을 묶은 영어 번역 선집 *Words of Farewell*이 출간되었다. 박진임(2004, p. 100)에 따르면, 당시 미국 도서 시장에서 아직 낮설던 한국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것임에도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던 1980년대에 출간되어 예외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해당 “책의 성공은 여성 문제라는 보편성과 한국 여성만의 정서와 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의 겸비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여성문학,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는데 미국과 비슷한 반향을 얻지 못한 것은 해외 문학의 이입과 수용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집계한 한국문학선집 20종에 관한 언론 기사를 두 DB로 검색한 결과 총 19건이 나왔다¹⁷⁾.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해당 선집 소개가 목적인 기사도 있지만, 한국에 관해서 또는 한국문학이나 한국 작가를 소개하며 참고할 만한 도서로 단순히 선집을 언급한 기사도 있다.

표 3

프랑스어 번역·출간 한국문학선집을 소개한 현지 언론 기사 목록

기사	선집	번역서 제목 (간략 표기)	기사 제목 수록처 [매체]	비고
1	1	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	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 <i>Le Télégramme de Brest & de l'Ouest</i> , 1981.3.18. [지역 일간지]	신간 소개 코너에 해당 도서 간략히 소개
2	1	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	Les Coréennes, <i>Libération</i> , 1981.6.11. [전국 일간지]	‘한국여성들’이란 제목하에 선집 수록자들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성(유교주의, 전쟁, 자본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이라 소개
3	2	Liberté sous clef /	Partition coréenne - Prophètes en leur pays, <i>Libération</i> , 1991.10.24. [전국 일간지]	‘한국 분단 — 자기 고향의 예언자’란 문학 특집 기사에 선집 2종 단순 언급
4	4 (F)	Une Fille nommée Deuxième garçon	La Corée et ses héros défigurés, <i>Le Monde diplomatique</i> , 1992.5.1. [전국 월간지]	‘한국과 한국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란 제목의 한국 관련 심층 기사에 김승옥 작품 수록 선집(2번), 여성문학선집(4번)으로 언급
5	6	Anthologie de nouvelles coréennes contemporaines, T.1&2	L'hirondelle du Matin calme. Les Coréens sont en France pour les “Belles Étrangères”, <i>Libération</i> , 1995.11.30. [전국 일간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체미 — 한국작가들, ‘벨제트랑제르’ 행사로 프랑스 방문’이란 기사에 황순원 작가를 중심으로
	7			

17) 한 언론의 동일한 기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복 발행되는 경우는 한 건으로 간주하였다.

기사	선집	번역서 제목 (간략 표기)	기사 제목 수록처 [매체]	비고
				한국문학 조명하며 선집 언급
6	9	Passeport pour Séoul	La traversée de Hwang Sok-Yong, <i>Liberation</i> , 2002.5.9. [전국 일간지]	황석영 작가를 소개하며, 한국 관련 추천 도서로 서지정보만 언급
7	9	Passeport pour Séoul	Actes Sud propose un “Passeport pour Séoul”, <i>AFP</i> , 2002.5.22. [통신사 뉴스]	2002 FIFA 한일 월드컵 개최 앞두고 펴낸 여행안내서이자 문학선집으로 소개
8	9	Passeport pour Séoul	À la découverte d’une Corée plurielle, <i>Le Monde des livres</i> , 2002.5.31. [전국 일간지 도서 섹션지]	‘복수의 한국을 발견하려 나서기’란 제목의 기사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국 한국에 대한 도서로 추천
9	9	Passeport pour Séoul	Passeport pour Séoul, <i>La Voix du Nord</i> , 2002.6.14. [지방 일간지]	한국과 일본을 테마로 하는 도서 4종을 추천하며 그중 하나로 간략히 소개
10	12 (F)	Cocktail sugar	Des nouvelles fraîches de Corée, <i>Grazia</i> , 2011.12.2. [여성 주간지]	“백 퍼센트 여성의 시각을 담은 한국의 문학작품” 선집으로, 싱그러움을 머금은 달콤쌉싸름한 각테일과 같은 뒷맛을 남긴다고 평함
11	12 (F)	Cocktail sugar	Han Kang : “Quel que soit le livre que j’écris, la violence ressort”, <i>Le Monde des livres</i> , 2023.9.1. [전국 일간지 도서 섹션지]	『작별하지 않는다』 번역서의 프랑스 출간 후 한강을 집중 조명하며, 작가의 첫 프랑스어 번역 작품 수록 도서로 언급
12	12 (F)	Cocktail sugar	Prix Nobel de littérature 2024 : Han Kang, la traversée des frontières, <i>La Croix</i> , 2024.10.10. [전국 일간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직후 보도 기사에서 한강 작가의 첫 프랑스어 번역 작품 수록 도서로 언급
13	12 (F)	Cocktail sugar	Quand Han Kang, la nouvelle lauréate du prix Nobel de littérature, se confiait au <i>Monde des livres</i> ,	상동

기사	선집	번역서 제목 (간략 표기)	기사 제목 수록처 [매체]	비고
			<i>Le Monde</i> , 2024.10.10. [전국 일간지]	
14	12 (F)	Cocktail sugar	Han Kang, Prix Nobel de littérature 2024 : retour sur l'œuvre d'une prosatrice exceptionnelle, <i>RTL.fr</i> , 2024.10.10. [라디오 사이트]	상동
15	12 (F)	Cocktail sugar	Nobel de littérature 2024 : la romancière sud-coréenne Han Kang sacrée, <i>Le Monde</i> , 2024.10.11. [전국 일간지]	상동
16	12 (F)	Cocktail sugar	La Prix Nobel de littérature 2024, <i>Lire</i> , 2024.11.1. [문예 월간지]	상동
17	12 (F)	Cocktail sugar	Han Kang, le « han » physique et minéral, <i>Le Monde</i> , 2025.3.21. [전국 일간지]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번역 신간 소개하며 언급
18	14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Hâtez-vous de les lire !, <i>Le Figaro</i> , 2014.5.15. [전국 일간지]	르 클레지오가 한국 현대문학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여성작가 중심의 단편선집을 “서둘러 읽으라” 권하며 자세히 소개
19	14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Lectures coréennes avec la Cie Les Z'ArTmateurs, <i>Ouest-France</i> , 2015.11.19. [지방 일간지]	한국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내 한국의 해’에 지방 도서관 개최 낭독회에서 낭독된 한강의 작품 수록 도서로 언급

<표 3>에서 주목할 기사만 일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¹⁸⁾. 『Le Monde

18) <표 3>에 집계된 언론 보도에서 ‘한국여성’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 글은 『Libération』(리베라시옹)에 수록된 기사 2번이다. 그런데 선집 1번에는 표제작인 「환영을 찾는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작가들의 소설만 실렸다. 서두에서

diplomatique』(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기사 4번에서 모뤼스는 「La Corée et ses héros défigurés」(한국과 한국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란 제목하에 ‘문학, 전쟁, 산업화’란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을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한반도 ‘분단’이 한국문학의 주요 테마라 진단하고, 창작의 단위로 ‘유교사회의 끝없는 퇴락’을 꼽았는데, 그러한 퇴락이 이문열 소설의 제목처럼 ‘일그러진 영웅’들로 나타나는데, 남성은 불구의 몸이나 부재의 형식으로, 여성은 학대당하거나 침묵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선집 4번(「둘남이」를 표제작으로 한 여성문학선집)을 참고할 만한 도서로 언급했다. 앞서 밝혔듯이, 모뤼스는 한국여성문학을 이같이 일관성 있게 소개하였다.

선집 20종 중 현지 언론 기사에 가장 많이 언급된 도서는 선집 12번으로, 「각테일 슈가」를 표제작으로 하는 여성문학선집이다. 해당 도서에 관한 첫 기사는 여성 주간 잡지 『Grazia』(그라지아)에 실렸다. 기사 10번에서 바르네트(Barnett) 기사는 “백 퍼센트 여성의 시각을 담은 한국의 문학작품”이란 점에서 해당 도서가 “희소성”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엄선된 단편소설들”을 통해 여성작가들은 “국수 가게 여자 주인에서부터 보피첼리¹⁹⁾의 「비너스의 탄생」에 매료된 똥똥한 중학생 소년을 거쳐 ‘각테일 슈가’를 둘러싼 불륜 관계에 이르기까지, 대개 수수한 인생을 그려”낸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대개 불우한 사회의 일면을 이야기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 8편”은 “여성성이 들끓는, 호기심 가득한 시대”를 가로지르며 “형언할 수 없는 싱그러움을 머금은, 달콤쌉사름한 각테일과 같은 뒷맛”을 남긴다고 평하였다. 선집 12번 포켓판의 뒤표지에 해당 기사의 마지막 구절이 인용된 만큼 효과가 크다 볼 수 있다.

선집 12번 관련 기사 중 5건은 한강이 2024년 10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에 작가를 소개하며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된 작품인 『해질녘에 깨들은 어떤 기분일까』가 수록된 선집으로 언급하였다. 다른 1건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2023년에, 나머지 1건은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가 2025년 현지 번역 출간되자 이를 심층 소개하는 기사로, 역

밝혔듯이, 본 논문에서는 ‘여성문학’을 ‘여성작가가 창작한 문학작품’으로 정의하기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9) 소설 속 요소를 서평자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라 원작의 한국어 표기를 따랐다.

시나 작가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 수록된 도서로 언급하였다. 한국 문학선집 수록 작가 중 한 명이 이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 해당 선집도 함께 조명을 받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 18번은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를 표제작으로 하는 선집 14번을 소개하는 글로, 프랑스 유력 일간지 『Le Figaro』(르피가로)는 ‘문학 비평’ 코너에 종이 신문 한 페이지의 절반을 이에 할애하였다. 기사 집필자가 노벨문학 수상자인 프랑스 문단의 거장 르 클레지오(Le Clézio)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체류하며 활동하여 지한파로도 잘 알려진 르 클레지오는 “여성문학의 오랜 전통에서 유래된, 한국에서 매우 사랑받는 장르”로 단편을 소개하며, “동시대 한국문학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수록작들이 거의 모두 여성작가의 작품이라 밝히며 수록 소설 10편의 내용을 각각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자기연민 없이 정확한 언어로 냉철하게 가차 없이 서술”하며 “언제나 비유와 암시가 빠지지 않으면서 한국 민족 특유의 자조적 필치가 깃들여진” 작품들이 실린 “감동과 분노와 웃음이 가득한 이 선집”을 “서둘러 읽고 책을 사서 주변에 돌려보라”고 권하였다.

4.2 독자 서평 분석

독자 서평 수집은 프랑스어 온라인 서평 사이트 바벨리오(Babelio)²⁰를 활용하였다. 바벨리오는 2007년 독서 애호가 3명이 만든 웹사이트로, 이후 영향력 있는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바벨리오 회원들이 특정 도서를 읽고 의견을 남기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바로 별점 평가, 서평 작성, 인용 문구 작성, 댓글 남기기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정리한 후, 2026년 2월 14일 최종 업데이트

20) 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에 명시하였다. 바벨리오의 서평자가 개인 프로필 소개에 정보를 남긴 경우 확인해 보면 대부분 프랑스인이거나 프랑스 거주로 표시했으나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벨기에, 스위스 등) 거주자도 있는데 이들의 국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프랑스어권 독자들이 서평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자장 안에 함께 있기에 국적에 따라 서평자를 배제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하였다. 바벨리오에 검색 결과가 없는 6종(선집 1~5, 15번)을 제외하면, 한국 문학선집 총 14종에 별 평점 156건이 남겨졌다. 각 선집 도서의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중수로 단순히 나눠 계산하면 5점 만점에 3.48점이다. 서평은 작성하지 않고 작품 속 인용 문구만 남긴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문학선집 프랑스어 번역서 20종 중, 총 8종(7, 12~14, 16~17, 19~20번)에 대해 바벨리오 회원 독자 37명이 남긴 서평 39건이 최종 집계된다(2명은 각각 선집 2종에 서평을 남겼다). 서평이 많은 순서대로 보면, 첫째로 선집 12번 15건, 둘째로 14번 6건, 셋째로 13번 20번 각 4건, 넷째로 17번 19번 각 3건, 다섯째로 7번 16번 각 2건이다. 서평 작성일은 2012년 3월부터 2026년 2월에 이른다. 여성문학선집이자 현지 언론 기사 최다인 동시에 서평 최다 선집인 12번은 출간한 해인 201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꾸준히 서평이 올라왔다. 반면, 대부분의 선집은 출판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에 서평이 작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4.2.1 현지 독자들이 주목한 여성문학 작품

서평 최다 선집 12번은 여성문학선집이란 점에 관해서 우선 보자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신랄하게 가차 없이 묘사한 다양한 이야기 덕분에 한국에서 여성들이 처한 삶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거나, 한국 여성문학의 풍경 또는 한국 여성작가들의 필치를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서평자는 수록작 8편 중 7편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점에 주목했다(ID: deslivresetdesfilms, 2016. 3. 25.). 반면,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로는 이러한 경향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도 있다(ID: LesChroniquesdEmilie, 2023. 11. 26.). 선집 12번 관련 서평 15건 중 어떤 작품이 가장 좋았거나 인상 깊었거나 강한 여운을 남겼는지 밝힌 글도 있다. 서평자 3인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작품만 보자면, 최다 호평작은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6건), 다음으로 김애란의 「칼자국」(4건), 은희경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3건) 순이다.

각 작품을 좋아한 이유를 밝힌 사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그 가을의 사흘 동안」(원작 1980년)은 한국전쟁의 혼란 시기에 강간당한 여자 의사가 낙태 수술을 받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맞서기 위해 서울 변두

리 지역에서 주로 매춘 여성을 상대로 낙태 수술 전문가가 되었다가 은퇴를 3일 앞두고 살아 있는 아기를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이야기로, 그 강렬한 서사에 “빨려 들어갔다”거나(ID: AliceFee, 2025. 6. 19.)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 충격적”이며(ID: ars_libris, 2025. 11. 15.) 자신을 “뒤흔드는” 독서 경험(ID: Meary, 2026. 2. 1.)이었다는 등의 감상과 함께 호평했다. 이어서, 「칼자국」(원작 2008년)은 딸이 모친상을 당하고 강인했던 어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로, “수록 선집에서 단 1편만 꼽으라면 단연 해당 소설을 꼽겠노라며”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선집을 읽을 이유가 있다”고 극찬하였다(ID: deslivresetdesfilms, 2016. 3. 25.). 끝으로,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버림받은 아들이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똥똥한 소녀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만나기 전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로, ‘몸무게’란 화두를 통해 타인들이 얼마나 쉽게 “묻지도 않은 의견을 제 맘대로 내놓으며”(ID: AliceFee, 2025. 6. 19.)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비만해진 성인이 감당해야 하는 “타인의 시선”, 정형화된 사회에서 “자신을 탈바꿈하려는 사람”을 향한 “사회적 폭력과 잔혹함”을 작가가 “매우 섬세하게” 잘 그려낸다고 평하였다(ID: ars_libris, 2025. 11. 15.). 선집 12번의 최근 서평 중에서, 한국문학이라 하면 연상할 만한 “필굿(feel good)”²¹⁾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는 글도 흥미롭다(ID: enorielle, 2025. 8. 6., ID: Meary, 2026. 2. 1.). 이는 선집 제목으로 쓰인 표제작의 표현(‘칵테일 슈가’)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2020년대 들어 프랑스를 포함해 해외에서 K-힐링소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형성된 독자층의 예상과 기대 때문이라 본다.

작품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리기도 한다. 서평이 두 번째로 많은 선집 14번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은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이다. 소설 줄거리를 자세히 소개한 후, 가차 없는 한국사회에서 운 좋게 태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파괴적인 일상을 견뎌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평하거나(ID: franciscov60, 2014. 12. 22.), 작품에서 다루는 테마들의 보편성으로 인해 전 세계 거의 어디에서나 울림을 일으킬만하다고 호평하였다(ID: Maripole,

21) 국내에서는 ‘힐링문학’, ‘힐링소설’이라 칭하는 작품들이 바벨리오에서는 영어 표현을 사용한 ‘feel good’ 카테고리 분류된다.

2014. 6. 25.). 반면, 표제작이자 첫 수록작인 해당 소설에 몰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다음 작품부터는 저절로 잘 읽혔다는 의견도 있었다 (ID: Poniel, 2014. 9. 29.).

4.2.2 ‘한국’을 ‘아시아’로 포섭하는 경향

한국문학선집에 대한 독서평에서 아시아 문학이나 아시아 국가 여성으로 포섭·일반화되는 구절도 간혹 보였다. 한국문학과 한국 여성이 표상하는 바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프랑스 독자들의 경우 친숙한 아시아 이미지를 인식의 준거로 삼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권지예의 「꽃게 무덤」이 관능과 자살에 관한 이야기로 에로스와의 타나토스 사이를 오가는데 소설 속 여인이 알몸으로 게를 열심히 파먹는 장면이 일본의 유명한 춘화(春畵) 「어부 아내의 꿈」(국내에 알려진 제목은 「문어와 해녀」)에서 여인과 문어가 교감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든가(선집 19번, ID: Lecturoir, 2017. 2. 28.), 권여선 소설 「분홍리본의 시절」의 주인공 1인칭 화자 연회가 일본 영화 『오 루시』의 말 없는 세츠코를 생각나게 한다는(선집 20번, ID: Butylphenyl, 2018. 2. 17.) 평이 있고, 「분홍리본의 시절」 속에서 모든 게 음식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홍콩 영화 『화양연화』를 연상시키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영화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소설도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밝힌(ID: JessSwann, 2018. 2. 4.) 평도 있다.

4.2.3 한국문학선집의 효용성

한국문학선집을 읽게 된 계기를 명시한 서평자들도 있다. 그중 흥미로운 사례로, 한 서평자는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어보고 좋았기에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어떤 작가를 선택해야 할지 몰랐는데, 한 국가의 문학을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선집을 읽는 게 최선책이라 했던 고등학생 시절 한 선생님의 조언이 기억나 실천했는데, 역시나 그 말이 옳았다고 평했다(선집 13번, ID: Liloo67, 2021. 9. 6.). 마찬가지로,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고 한국문학에 관심이 생겨 선집을 찾아 읽었다가 그중에서 좋아하는 작품들을 만났다고 밝힌 이도 있다(선집 12번, ID: ars_libris, 2025. 11. 15.). 또 다른 독자의 경우, 한국문학을 처음

접하는데 혼자 생각해낸 방법이 필립 피키에 출판사 사이트를 방문해 검색하는 것이었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고 싶어 선집을 골랐다고 밝혔다(선집 13번, ID: Wictoriane, 2016. 6. 4.). 이는 한국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단편소설을 수록한 문학선집의 특성에 대해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공존한다. 작품별로 질적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든가, 작품에 따라 흥미가 오르락내리락했다든가, 작품들 간에 일관성이 결여된 듯하다는 평도 있고, 일부 작품이 매우 뛰어나 만족했다거나, 선입견 없이 문학적으로 배우는 차원에서 각 소설에 빠져보기를 권하는 평도 있다. 프랑스의 단편소설과는 길이나 문체가 달라 당황스러웠다는 평도 있지만, 독서를 멈췄다가 다시 읽어도 흐름이 끊겼다는 인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단편소설이란 문학 형식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다거나(선집 17번, ID: J1mc0246, 2024. 4. 22.),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소리 내 낭독하며 독서를 공유하고자 할 때 단편소설보다 더 멋진 장르가 없다고 예찬한(선집 12번, ID: Lybertaire, 2016. 2. 21.) 평도 있다²²⁾.

5. 나가며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로 번역·출간된 한국문학선집에 수록된 여성작가 중·단편소설의 현지 수용 양상을 서지 자료, 번역서 주변텍스트, 언론 보도 및 독자 서평을 통해 분석하였다. 번역 결과물 자체를 비평적으로 ‘가까이 읽는’ 방식이 아니라, 번역 수용 맥락과 관련된 데이터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번역사 기록학’(Munday et al., 2023, p. 39)의 일종이자 ‘멀리서 읽

22) 한국문학의 해외 수용 측면에서 최미경(2012)은 처음 번역 소개하는 작가라면 장편소설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도, 프랑스의 경우 “외국문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또는 단편집이 다루는 주제가 프랑스 독자의 관심분야와 맞을 때 우호적인 수용환경을 마련할 수는 있다”는 단서를 달고, 프랑스인도 “독서량과 독서시간 감소로 지나치게 긴 소설을 피한다”며 “장편소설을 응축한 듯한 깊이와 묘미를 주는 한국단편 장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한 바 있다(pp. 306-307).

기'(Moretti, 2021)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가 간에, 또는 모든 언어-문화권 간에 문화 교류가 상호호혜적 방식으로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한국 여성문학의 프랑스어 선집 번역은 일종의 삼중고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 한국문학에서 여성작가의 작품이 차지한 상징자본, 출판시장에서 문학선집이 점유한 위치가 모두 ‘소수적’, 즉 ‘주변적’ 성격을 가졌던 점에서다. 지난 45년간 그러한 삼중의 시련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직간접적으로 이뤄졌다. 초기에는 프랑스에서 한국이라는 멀고도 낯선 나라의 문학을 ‘소개’하는 데 앤솔로지 출간이 유용한 방편이었고, 선구자 몇몇이 고군분투하여 어렵게 출간된 한국 중·단편소설 선집에는 여성문학이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문단에서의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었다. 동시에 여성에 방점을 둔 번역 전략, 즉 한국여성문학선집 출간도 이뤄졌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문학이 세계중심부를 향해 나아가고, 여성작가가 국내외적으로 약진하면서 한국문학선집에서 여성작가의 작품 비중이 확연히 증가했음을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초 연구적 성격도 띤다. 선행연구 및 기존 통계는 주로 단행본 위주로 이루어져 선집에 수록된 중·단편소설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일반 연구자들도 쉽게 확인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목록을 정리한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서지 목록 작성의 더 큰 의의는 번역문학사 속 여성작가의 계보를 그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두 차례 번역되었다 잊힌 중·단편소설 중 재번역을 통해 소생시킬 만한 작품은 무엇인지,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작품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어 번역을 기획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도 번역 목록을 상호 교차하며 참조할 수 있겠다.

지면의 제약상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공유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프랑스의 한국여성문학 수용이라는 연구 문제를 (선집 외에) 개별 작가 단행본, 더 나아가 고전, 시, 희곡 등 다른 장르까지 확장해 더 큰 지형을 살펴볼 계획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한국문학선집 프랑스어 번역서 및 수록 작품(<표 1>과 <부록>에 명시).
한국문학번역원 디지털도서관(<https://library.ltikorea.or.kr/>) 검색 자료.
프랑스어 서평 전문 사이트 바벨리오(<https://www.babelio.com/>) 검색 자료.
프랑스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https://bdl.bnf.fr/>) 검색 자료(<표 3>에 명시).

<2차 자료>

- 곽효환. (2022).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21(1), 13-40.
- 김경희. (2015).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프랑스어 번역본에 관한 고찰. 한국언어문화, 57, 129-149.
- 김정연. (2015). La traduction d'œuvres littéraires coréennes en français: Son bilan à partir des années 2000 et ses perspectives [한국문학작품의 프랑스어 번역과 출판 현황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4), 145-212.
- 남윤지. (2015).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 서사텍스트의 제목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6(3), 85-126.
- 남윤지. (2024). 한국여성문학의 프랑스어 번역 양상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르뷔 드 코레』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32(2), 257-293.
- 박진임. (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6).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Naver 지식백과. 2025. 11. 14. 검색,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60553&categoryId=60553>
- 여성문학사연구모임. (편). (2024). 한국 여성문학 선집 (1-7권). 민음사.
- 오정숙. (2004a). 프랑스의 한국문학: 번역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유럽문화정보센터. (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과거, 현재, 미

- 래 (pp. 45-78).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정숙. (2004b). 부록: 한국문학 번역 출판 목록(프랑스어). 유럽문화정보센터. (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과거, 현재, 미래 (pp. 357-364).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건수, 김보경, 김지윤, 전세진, 정기인, 정성훈, Seth Chandler. (2023). 한국문학 영어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1):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4(1), 7-42.
- 이영훈. (2022). 단편 「채식주의자」 프랑스어 번역의 번역비평 시론 - 베르만의 번역분석론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6(1), 107-138.
- 이현희. (2018). 한국문학이 프랑스에 들어오는 한 방법에 대하여 - 김애란 「달려라, 아비」의 두 가지 번역 읽기.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6(1), 143-172.
- 이형진. (2023). 한류를 통해 바라본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 조의연, 이상빈. (공편), K 문학의 탄생: 한국문학을 K 문학으로 만든 번역 이야기 (pp. 374-388). 김영사.
- 정은진. (2020). 한국소설의 프랑스 수용의 문제: 소설의 장·단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80, 339-371.
- 최미경. (2012).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프랑스학연구, 62, 299-328.
- 한국학중앙연구원. (n.d.). 여성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Naver 지식백과. 2025. 11. 14.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1264&cid=46645&categoryId=46645>
- Batilliot, J. (2016). La longue marche de la diffusion des œuvres coréennes en France [한국문학작품, 프랑스 전파의 기나긴 행군]. *Culture Coréenne*, 92, 3-6.
- Casanova, P. (2008).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 (Édition revue et corrigée) [세계문학공화국 (개정판)]. Éditions du Seuil.
- Ch'oe, Y. (2023). Dynamiques féminin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 des années 1980-1990 [1980~1990년대 한국문학 속 여성의 역동성]. *Keulmadang*,

6, 11-20.

- De Saint Cheron, Ph. (1996). Échos des Belles Étrangères: Les lettres de noblesse de la Corée [‘벨제트랑제르’의 반향: 한국의 ‘귀족 작위 수여’]. *Culture Coréenne*, 41, 2-8.
- Li, J. (1995). Traduction d'œuvres littéraires coréennes en français de 1892 à 1994 — Bilan et problèmes [한국문학작품의 프랑스어 번역(1892~1994년) — 성과 및 문제]. *Revue de Corée*, 27(1), 116-133.
- Moretti, F. (2021). 멀리서 읽기: 세계문학과 수량적 형식주의 (김용규, 번역). 현암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5판) (남원준, 이형진, 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 Nam, Y. (2012). *Traduire le titre: enjeux sémiotiques et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des titres d'œuvres narratives (France-Corée)* [Translate the title: semiotic and theoretical issues of translating the title of narrative works (France-Kore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é Paris 8].
- Risterucci-Roudnicky, D. (2008). *Introduction à l'analyse des œuvres traduites* [번역작품 분석 입문서]. Armand Colin.
- Von Flotow, L. (2017). 번역과 젠더: 페미니즘 시대의 번역 (김세현, 번역). 도서출판 동인.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부록: 프랑스어 번역·출간 한국문학선집 수록 중·단편소설 목록

작품 번호	선집 번호	출판 연도	작가	작가 성별	프랑스어 번역 제목	원작 제목	원작 연도
1	1	1980	이정호	여	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	환영을 찾는 여인	1965
2	1	1980	이병주	남	L'éventail pliant	철부채	1969
3	1	1980	김원일	남	L'ermitage P'a-ra	바라암	1974
4	1	1980	김문수	남	Le chat cuit	증묘(蒸猫)	1973
5	1	1980	조정래	남	Tchong-san-täk	청산택	1972
6	1	1980	황석영	남	Rêver de cochons	돼지꿈	1973
7	2	1981	김진옥	여	Un million pour mourir	백만 원의 전표	1977
8	2	1981	황석영	남	Le Sang	이웃사람	1972
9	2	1981	황석영	남	La route de Samp'o	삼포 가는 길	1973
10	2	1981	정연희	여	Liberté sous clef	간힌 자유	1972
11	2	1981	손소희	여	Quand les corneilles s'en vont	갈가마귀 그 소리	1970
12	2	1981	김정환	남	Village d'hommes	인간단지	1970
13	2	1981	성기조	남	Malédiction	천지흑백황	1970
14	2	1981	김승옥	남	Séoul, Hiver 1964	서울, 1964년 겨울	1965
15	2	1981	선우휘	남	Nostalgie	망향	1965
16	2	1981	전광용	남	Le Kapitan Lee	꺼삐딴 리	1962
17	2	1981	이범선	남	Balle perdue	오발탄	1959
18	2	1981	이광수	남	L'Ignorance	무명	1959
19	2	1981	박종화	남	La Fidélité de Arang	아랑의 정조	1937
20	2	1981	나도향	남	Sam-yong, le Sourd-muet	병어리 삼룡이	1927
21	2	1981	현진건	남	L'Incendie	불	1925
22	3	1988	박완서	여	Celle que j'ai rencontrée à l'aéroport	공항에서 만난 사람	1978
23	3	1988	조선작	남	Le mur	성벽	1973
24	3	1988	황석영	남	L'oiseau de Molgyewol	몰개월의 새	1976

작품 번호	선집 번호	출판 연도	작가	작가 성별	프랑스어 번역 제목	원작 제목	원작 연도
25	3	1988	이문열	남	L'île anonyme	익명의 섬	1982
26	3	1988	오정희	여	Le chant du pèlerin	순례자의 노래	1983
27	3	1988	이동하	남	Le gros rire	홍소	1977
28	4	1989	한무숙	여	Ombre	그늘	1962
29	4	1989	박완서	여	Une vieille anémone, un jour lugubre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1977
30	4	1989	이경자	여	Une fille nommée deuxième garçon	둘남이	1987
31	4	1989	강석경	여	Le jour et le rêve	낮과 꿈	1983
32	4	1989	이규희	여	La récolte des choux	배추농사	1972
33	4	1989	윤정모	여	La Mère	어머니	1985
34	5	1989	황순원	남	Les Grues	학(鶴)	1956
35	5	1989	이범선	남	Une Balle Perdue	오발탄	1959
36	5	1989	김승옥	남	Séoul, Hiver 1964	서울, 1964년 겨울	1965
37	5	1989	이제하	남	Le Végétalisme	초식	1973
38	5	1989	서정인	남	Tuitgae	뒷개	1977
39	5	1989	조세희	남	Les Arêtes de Poisson Prises dans mon filet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1978
40	5	1989	오정희	여	La Cour de mon enfance	유년의 뜰	1980
41	6	1995	임철우	남	La Gare de Sap'yŏng	사평역	1983
42	6	1995	김향숙	여	Transparente sentinelle	유리파수꾼	1986
43	6	1995	이승우	남	Zone altitudinaire	고산지대	1988
44	6	1995	양귀자	여	Feu soufré de l'enfer	유황불	1984
45	6	1995	김영현	남	L'insecte	벌레	1989
46	7	1995	최성각	남	Prendre racine	뿌리 박기	1986
47	7	1995	이창동	남	Les Papiers sacrificiels	소지(燒紙)	1985
48	7	1995	최수철	남	Réflexions sur le regard	시선고	1985
49	7	1995	고원정	남	Le Sommeil du géant	거인의 잠	1985
50	7	1995	김남일	남	Le Chemin	길	1991
51	8	1997	김동리	남	Le Cheval de poste	역마	1948

작품 번호	선집 번호	출판 연도	작가	작가 성별	프랑스어 번역 제목	원작 제목	원작 연도
52	8	1997	황순원	남	Les Funambules	꼭예사	1952
53	8	1997	박경리	여	Tout blanc, tout noir	흑흑백백	1956
54	8	1997	박완서	여	Sortie hivernale	겨울 나들이	1975
55	8	1997	이호철	남	La Grande Montagne	큰 산	1970
56	8	1997	최일남	남	La Barbe de Chang Sŭng'tae	장씨의 수염	1984
57	8	1997	서정인	남	La Rivière	강	1968
58	8	1997	이어령	남	Le Meurtrier	암살자	1966
59	8	1997	이제하	남	Le Végétalisme	초식	1972
60	8	1997	한승원	남	Le Marécage de l'esprit marin	해신의 늪	1977
61	8	1997	이청준	남	Söp'yönje. La Chanteuse de p'ansori	서편제	1976
62	8	1997	김승옥	남	Récit d'un voyage à Mujin	무진기행	1964
63	8	1997	이문구	남	Un cochon stupide	못난 돼지	1971
64	8	1997	김원일	남	L'Âme de l'obscurité	어둠의 혼	1973
65	8	1997	조세희	남	Le Petit Prince	어린왕자	1983
66	9	2002	현진건	남	Une société qui pousse à boire	술 권하는 사회	1921
67	9	2002	김승옥	남	Séoul, hiver 1964	서울, 1964년 겨울	1965
68	9	2002	조세희	남	L'Usine des espoirs de l'homme de l'appartement 503	503호 남자의 희망공장	1983
69	9	2002	이동하	남	L'Éclat de rire	홍소	1977
70	9	2002	이청해	여	Le Bruit de la pluie	빗소리	1991
71	9	2002	박완서	여	Les Gens de Séoul	서울 사람들, 올챙이적 생각을 왜 해	1984
72	10	2010	김다은	여	Madame	마담	2005
73	10	2010	최면정	여	Pojangmacha	포장마차	2002
74	10	2010	김애란	여	Le Couteau de ma mère	칼자국	2007

작품 번호	선집 번호	출판 연도	작가	작가 성별	프랑스어 번역 제목	원작 제목	원작 연도
75	10	2010	은희경	여	La Voleuse de fraises	딸기 도둑	2001
76	11	2011	김연수	남	Prisonniers de la chambre forte	금고에 갇히다	2010
77	11	2011	김중혁	남	D le décalé	엇박자 D	2008
78	11	2011	김태용	남	J'étais un maquereau	포주 이야기	2008
79	12	2011	김애란	여	Le Couteau de ma mère	칼자국	2008
80	12	2011	고은주	여	Cocktail Sugar	칵테일 슈가	2004
81	12	2011	전경린	여	La Philosophie de son boudoir	부인내실의 철학	2003
82	12	2011	은희경	여	La beauté me dédaigne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2007
83	12	2011	오정희	여	Premières neiges	첫눈 오던 날	2009
84	12	2011	한강	여	Les Chiens au soleil couchant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1999
85	12	2011	박찬순	여	Doublage	립싱크	2009
86	12	2011	박완서	여	Trois jours en automne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980
87	13	2012	김애란	여	Cours, papa !	달려라, 아버지	2005
88	13	2012	김영하	남	Le déménagement	이사	2004
89	13	2012	신경숙	여	Quand viendra l'heure ?	그는 언제 오는가	1997
90	13	2012	정이현	여	Au grand magasin Sampung	삼풍백화점	2005
91	13	2012	김중혁	남	Une bibliothèque d'instruments	악기들의 도서관	2008
92	13	2012	조경란	여	J'ai acheté des ballons	풍선을 샀어	2008
93	13	2012	전성태	남	La forêt de l'existence	존재의 숲	2004
94	13	2012	김인숙	여	Une autobiographie féminine	그 여자의 자서전	2005
95	14	2014	김애란	여	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2009
96	14	2014	백가흠	남	Rumeurs	그리고 소문은 단련된다	2009

작품 번호	선집 번호	출판 연도	작가	작가 성별	프랑스어 번역 제목	원작 제목	원작 연도
97	14	2014	안영실	여	Amour impossible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2011
98	14	2014	조경란	여	Semilles	파종	2011
99	14	2014	박찬순	여	Stoppie à moto	잭나이프하는 바퀴	2009
100	14	2014	김연수	남	Bonne année à tous !	모두에게 복된 새해	2007
101	14	2014	최진영	여	Mon mari	남편	2010
102	14	2014	한강	여	Neuf épisodes	아홉 개의 이야기	2010
103	14	2014	윤성희	여	La maison en Lego	레고로 만든 집	2001
104	14	2014	편혜영	여	La fabrique de conserves	통조림 공장	2010
105	15	2014	오정희	여	Bénévolat	어떤 자원봉사	2009
106	15	2014	김연수	남	Jab	잡	2013
107	15	2014	김미월	여	Toutes ces questions	질문들	2012
108	15	2014	공지영	여	Dans les affres de l'écriture	맨발로 글목을 돌다	2011
109	15	2014	성석제	남	Sous les lauriers roses	협죽도 그늘 아래	1998
110	15	2014	김중혁	남	Yoyo	요요	2012
111	15	2014	이승우	남	Les gens ne savent pas ce qu'il y a chez eux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2001
112	16	2015	윤대녕	남	Les Poncires	탱자	2007
113	16	2015	정지아	여	La Lumière du printemps	봄빛	2008
114	16	2015	하성란	여	La femme d'à côté	옆집 여자	1999
115	16	2015	박민규	남	Norme Coréenne	코리언 스탠더즈	2005
116	16	2015	김연수	남	La Boulangerie -pâtisserie de New York	뉴욕 제과점	2002

작품 번호	선집 번호	출판 연도	작가	작가 성별	프랑스어 번역 제목	원작 제목	원작 연도
117	16	2015	김미월	여	Une guide des grottes de Séoul	서울 동굴 가이드	2007
118	17	2016	김미월	여	Hôtel Plaza	프라자 호텔	2012
119	17	2016	김애란	여	Et toi, ton été ?	너의 여름은 어떠한	2009
120	17	2016	편혜영	여	La sagesse du lapin	토끼의 묘	2009
121	17	2016	정영문	남	Pérégrinations avec un coq	달과 함께 하는 어떤	2008
122	17	2016	성석제	남	Piégé par sa femme	잡힌 사람	2008
123	18	2016	김애란	여	Cours Papa, cours	달려라, 아비	2005
124	18	2016	김애란	여	Les Goliath aquatiques	물속 골리앗	2012
125	18	2016	김중혁	남	La bibliothèque des instruments de musique	악기들의 도서관	2008
126	18	2016	김중혁	남	Bouclier de verre	유리방패	2008
127	18	2016	은희경	여	L'héritage	상속	2002
128	19	2016	권지예	여	La tombe de crabes	꽃게 무덤	2005
129	19	2016	이장욱	남	La chambre dansante d'Ivan Menchikov	이반 멘슈코프의 춤추는 방	2015
130	19	2016	천운영	여	Les aiguilles	바늘	2001
131	19	2016	김경옥	남	De dangereuses lectures	위험한 독서	2008
132	19	2016	김이환	남	La métamorphose	너의 변신	2011
133	19	2016	윤고은	여	L'ongle du chef	요리사의 손톱	2014
134	20	2017	권여선	여	Au temps des rubans roses	분홍리본의 시절	2013
135	20	2017	조해진	여	L'escorte de la lumière	빛의 호위	2017
136	20	2017	최은미	여	L'hiver derrière la vitre	창 너머 겨울	2015
137	20	2017	전경린	여	Premier amour	물의 정거장	2012
138	20	2017	구효서	남	Une envie d'aimer	화양연화	2013

The reception of Korean women's literature in France: A study of short stories and novellas published in anthologies of Korean literature

Yun-Ji Nam

Department of Korean-Frenc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oday, fiction by Korean women writers is widely read around the world, drawing greater media attention to K-literature and K-feminism. However, earlier translations have largely faded from view, underscoring the need to establish the genealogy of Korean wom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ception of these works in France, with a focus on translations of short stories and novellas from twenty anthologies of Korean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1980 and 2017.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various peritextual elements of the anthologies, as well as newspaper reports and online reader reviews. Of the 138 short and medium-length Korean works of fiction translated into French during this period, 63 (46 percent) were authored by women. This proportion changed over time: until 2010, women writers accounted for only 30 percent of the translated works, whereas after 2010 their share rose to 63 percent. Such translations occupied a marginal position in three respects. First, Korea itself remained peripheral in the French literary landscape. Second, women writers lacked symbolic capital in the Korean literary field. Third, French publishers showed a clear preference for full-length novels, then for single-author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and novellas, and finally, for multi-author anthologies. Nowadays, Korean female authors are no longer underrepresented in French translation, and their novels also sell well in France. Nevertheless, anthologies of their short stories and novellas would still be valuable, as they could offer French readers an accessible overview of their work.

Keywords: Frenc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women's literature; women writers; anthology; short stories and novellas

키워드: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 여성문학, 여성작가, 문학선집, 중·단편소설

남윤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겸임교수

bluella@naver.com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